“古악기 연주곡은 마차 타고 흙길 걷는 기분”

원전(原典) 연주 개척자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김진 씨

그 시대 악기로 그 시대 음악 연주 매력
17일 담양리조트서 쳄발로 듀오 공연 리허설 오픈
“고향 광주서도 살롱 연주회 열고 싶어”

한가한 오전의 커피숍에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퍼졌다.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김진(53)씨가 들려준 음악은 모던 바이올린이 갖고 있는, 다소 쨍한 느낌과 달리 따뜻한 질감이 인상적이었다.

김 씨는 한국 원전 연주의 물꼬를 튼 인물이다. 원전 연주(原典 演奏)는 ‘그 시대의 음악을 그 시대의 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 음악을 맡은 비올라 디 감바(첼로의 전신) 연주자 조르디 사발 등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원전연주가 인기를 모았지만, 한국에서는 생소한 장르였다.

그녀는 바로크 시대의 바로 그 악기로,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연주한다. 바로크 음악은 보통 1600년대부터 1750년 바흐가 사망할 때까지 작곡된 곡을 말한다. 그녀가 연주하는 악기는 오스트리아 압삼에서 제작된 1656년산(產) 야콥 슈타이너로 바로크 대표 작곡가인 코렐리와 바흐 시대 가장 사랑받았던 악기다.

바로크 바이올린은 현대 바이올린과 달리 쇠줄 대신, 양의 창자로 만든 줄을 쓴다. 턱받침도 없고 손가락을 짚는 지판과 활 모양도 다르다. 연주할 때도 턱을 거의 쓰지 않는다.

“모던 악기가 스포츠카를 타고 잘 닦인 하이웨이를 달리는 느낌이라면 고악기는 마차를 타고 흙길을 걷는 기분이예요. 돌멩이 하나 하나, 부드러운 흙의 촉감까지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음악입니다. 악기 자체가 섬세하고 인간적인 소리, 자연의 소리에 제일 가까워요. 크고, 강하고 자극적인 요즘의 음악과는 달라요. 연주할 때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느낌이예요. 단순히 연습을 통한 숙련 과정을 넘어 재창조하는 매력이 크죠.”

광주서석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합주부에서 바이올린을 시작한 그녀는 조대여중,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를 거쳐 미시건 음악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한창 바이올린을 공부하던 1987년 어느날 바로크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LP음반을 듣던 그녀는 충격에 빠졌고 일주일간 그 음악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그녀는 “창자에서 뭔가가 계속 빠져나오는 느낌 같은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원전 연주는 화려한 기교 없이 말하는 것처럼 의미를 전합니다. 악보에도 악상 기호가 없고 심플해요. 연주자가 완벽하게 제2의 창조를 하는 거죠. 그 악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 악기가 말하는 소리를 제대로 끌어낼 때 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만든 악기로 그 때의 음악을 연주하면 그 느낌이 나오지 않죠.”

원전 연주의 선구자 중 한명인 벨기에 시히스발트 카위컨에게 본격적으로 원전 연주를 배운 그녀는 1992년부터 스승이 만든 바로크 오케스트라 ‘라 쁘띠 방드(La Petite Bande)’와 연주를 하며 더욱 고음악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한국에서 원전연주라는 용어 조차 생소하던 2002년 바로크 프로젝트 앙상블 ‘무지카 글로리피카(Musica Glorifica·영광을 돌리는 음악)를 창단했고 다양한 레퍼토리로 원전연주를 열고 있다. 또 팬카페 (cafe.naver.com/musicaglorifica.cafe)를 통해 애호가들과 소통하고 있다.

“모던 바이올린에서 바로크로 떠나온 건 외롭고 힘든 일이었죠. 세상의 지위도 경제적 여유도 포기했어요. 1987년 그날을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외로웠고, 지금도 여전히 외로워요.(웃음) 하지만 제 연주를 통해 세상에 한번 나온 그 소리가 어딘가, 누군가의 마음에 계속 남아 있다는 걸 생각하면 경이롭죠. 우리보다 고음악 시장이 넓은 유럽과 일본에는 힘들어도 자기의 길을 꾸준히 가는 연주자들이 많아요. 그들과 같이 연주할 땐 천상의 소리를 듣는듯합니다.”

김씨는 오는 18일 서울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1층에 자리한 ‘카페 버즈 앤 벅스’에서 쳄발로 연주자 류노스케 오카다와 듀오연주회를 연다. ‘카페 뮤지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날 공연은 ‘바흐로 가는 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광주에서 공연이 열리지 않는 아쉬움을 달래줄 기회가 마련된다. 김씨는 연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담양리조트 1층 커피숍에서 17일 오후 8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오픈 드레스 리허설을 진행한다.

광주대 김혁종 총장의 동생이기도 한 그녀는 디자이너인 남편, 9살된 아들과 함께 미국 미네소타에 머물며 유럽, 일본, 한국 등에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부쩍 고향 광주에서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정식 공연장도 좋지만 사람들과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살롱음악회를 열고 싶어요. 이번 공연 타이틀에 언급된 카페 짐머만은 바흐가 라이프치히 시절 지인들과 연주회를 열었던 곳이예요. 언젠가는 그런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윤이상 vs 김광석 그리고…

캐나다 국경과 인접한 미국 북동부의 메인주 커싱에는 크리스티나 올슨 하우스라는 아담한 농가가 있다. 외관상으로 보면 전혀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시골집이지만 매년 미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다. 지난 2011년 미 연방 사적지로 지정된 후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도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여느 농가나 다름없는 올슨 하우스가 랜드마크로 부상한 건 국민화가 앤드류 와이어스(Andrew Wyeth·1917-2009) 덕분이다. 20세기 미국 회화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크리스티나의 세계’(Christina’s World·뉴욕현대미술관 소장)의 배경이었기 때문이다. 이 그림은 1939년 와이어스가 커싱에서 여름휴가를 즐기던 당시, 별장 창문을 통해 언덕위의 집으로 기어올라가고 있는 크리스티나 올슨을 보고 화폭에 담은 것이다. 세 살 때 앓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반신불구가 된 크리스티나가 양손으로 힘겹게 오르고 있는 뒷모습을 그린 작품은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커싱의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크리스티나의 애잔한 모습이 조화를 이룬 작품은 지도에서 찾기조차 힘든 커싱을 미 전역에 알렸다.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난 와이어스는 출생지인 펜실베이니아 채스포드 대신 예술혼을 불태운 제2의 고향 커싱에 안장됐다. 메인주 당국은 와이어스 컬렉션을 소장한 판스워스 미술관(Farnsworth Art Museum)과 올슨 하우스, 묘지를 연계한 관광투어를 개발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고 있다. ‘와이어스’ 하나로 커싱은 도시도 알리고 관광수익까지 챙긴다.

어디 미국 뿐이랴. 국내에도 지역 출신 예술인이나 지역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을 브랜드로 키워낸 사례들이 많다. 작곡가 고 윤이상을 배출한 경남 통영시는 지난 2002년 통영국제음악제(TIMF)를 통해 세계속의 음악도시로 변신중인가 하면 강원도 화천군은 지난 2006년 춘천 출신 소설가 이외수를 감성마을에 정착시켜 전국적인 문학촌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도 지역 출신인 포크가수 고 김광석(1964-1996) 효과를 ‘누리고’ 있는 중이다. 대구는 김씨가 태어난 방천시장 부근에 (그를 소재로 한) 벽화와 조형물 70여 점을 설치한 ‘김광석 거리’를 조성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하루 종일 김광석 노래가 흐르는 이곳에선 최근 18주기(1월6일)를 맞아 추모 콘서트가 열리기도 했다. 쇠락해가던 방천시장은 ‘김광석’ 이라는 이름 석자로 주말 저녁에는 발디딜 없을 정도다. 그러고 보니 광주에는 이름만 대면 ‘통하는’ 전국구 브랜드가 부족하다. 문화로 먹고 사는 도시를 꿈꾼다면 분발해야 할 것 같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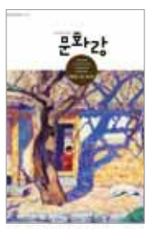
소설가 편혜영 씨 ‘이상문학상’

소설가 편혜영(42)씨가 월간 ‘문학사상’이 주관하는 제38회 이상문학상 대상(상금 3500만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지난해 ‘한국문학’겨울호에 발표한 단편 ‘몬순’이다.

수상작 ‘몬순’은 불의의 사고로 아이를 잃어버린 부부의 이야기다.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용직을 전전하면서도 아내에게 직장을 바꿨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 팽팽한 거리감을 보이는 부부의 답답한 관계를 그렸다.

200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로 등단한 편 작가는 ‘아이오가든’, ‘사육장 쪽으로’, ‘저녁의 구애’ 등과 장편 ‘재와 빨강’, ‘서쪽 숲에 갔다’를 펴냈다. 한국일보문학상, 이효석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동인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skypark@

‘문화랑’ 2호 나왔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이 발행하는 소식지 ‘문화랑’ 2호가 나왔다. 이번호에서 섬 문화예술 프로젝트와 전남도립국악단 ‘토요공연’ 등 다양한 소식을 담았다.

특집 ‘전남 섬문화 르네상스를 위해’에서는 지역문화의 원형인 남도 섬문화 자원의 개발을 위해 곳곳에 펼쳐지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현장을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엮었다.

‘문화랑 포커스’ 코너에서는 전남의 자연에 반해 이곳에 머물고 있는 외국 작가들을 소개하고, 전남도립국악단 ‘토요공연’이 사랑받는 비결을 꼼꼼하게 짚어봤다. ‘문화랑 예술인’에서는 생오지문예창작학교 이사장인 문순태 소설가의 문학에 대한 열정과 삶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문의 061-280-5805.

/이보람기자 boram@

광주문화재단, 17일 사업 설명회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실에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 문화예술공감프로젝트 지원사업 등 지역협력형 지원사업 공모 설명회를 실시한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든 8억의 예산으로 공연예술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1억원을 늘려 레지던스 한 곳당 4000만~6000만 원씩 총 3억 원이 지원된다.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은 문화예술공간을 거점으로 시민 대상 연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협력형 지원사업은 20일부터 2월 3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 받는다. 문의 062-670-7442~6. /이보람기자 boram@